

The Study on the Costume of Parhae through the Exchange for Tang and Ancient Japan

- Focused on the Exchanged Items -

Soon-Che Kang · Hyun-Sil Je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this thesis, the viewpoint of the study on the costume of Parhae(渤海) is actually expanded into both the cultural relation between Tang(唐) and Parhae and the exchanged costume items between Parhae and ancient Japan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is considered about the relation of costume among Parhae, ancient Japan (from Nara(奈良) era to the beginning of Pyungan(平安) era) and Tang.

The culture of Parhae, which was influenced by Tang's culture, was founded in the latter of 7th century. In addition, its culture was different from the culture of three kingdom : Koguryo, Paekjea, and Shilla.

1) The relation of exchange among Parhae, Tang and Japan

Parhae exchanged with Tang(including five northern dynasties) and ancient Japan. Each nation kept up the relation of exchange concerned with politics, culture, and economy. Parhae sent envoys 143 times to Tang, and 34 times to ancient Japan. Japan also sent envoys 18 times to Tang.

The exchange among three countries had been begun from their political necessity at first. However, it gradually got included economical meaning. Therefore, Parhae not only maintained the intimate relations with Tang

and ancient Japan, but it also had an active economical exchange especially the item exchange; each nation sent their envoys with their special products so that they could depend on each other and maintain their relationship.

2) The exchange of items among Parhae, Tang, and ancient Japan

In the historical records of China and Japan on the item exchange, the various exchanged items were recorded, which was helpful for us to study on the costume of Parhae at secondhand.

The recorded items, which were exchanged from Parhae to Tang and ancient Japan, are the pelt of marten, seal, bear and tiger skin or Anmowha(暗摸靴), Gu(裘) and so on. Other items from Tang and ancient Japan to Parhae are various clothes and material like silk and so on. As mentioned above, the items, which Parhae envoys delivered to two countries, were mainly leather products because the leather was the main product of Parhae. This Parhae's clothes made with leather and fish skin obtained through hunting and fishing had been greatly famous in Tang and ancient Japan. At that time, Tang and ancient Japan had

been only dependent on the agricultural life but had not been accustomed to the hunting life, and thereupon, the people in Tang and Nara(奈良) Era had difficulties to get leather clothes. Accordingly, the leather products stood for the rich, and the people who purchased the leather products from Parhae were recognized as the rich.

3) The costume of Parhae by the outside factor

The culture of costume affected by the outside factor was created by the relation of exchange among other countries. In addition, it was the common part that Parhae, Tang and ancient Japan had. For example, the costume of the ruling class in Parhae is similar to that of Tang and Japan. This generality also means the similarity of costume form, which was buil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hae and ancient Japan centering around the costume culture of Tang.

The feature is found in an official uniform and various clothes. The system of official uniform was formed in 739~742 A.D. and was based on the system of Tang. This system was classified into grade, and the grade was applied to the four colors of costume, Hol(笏) and Eodae(魚袋) separately. There also was a similar costume system in Tang at that time in point of using four colors, Hol and Eodae according to the grade.

On the other hand, The prince and the royal family in Parhae were dispatched to Tang as Sookwui(宿衛). They wer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and entered the national school in order to study Tang's civilization. Furthermore, they paid a tribute to Tang and in return for it, Tang gave to Sookwui as well as to Parhae's envoys various items and clothes such

as Po(袍), belt(帶), gold and silver Eodae and textile like a type of silk. These clothes were considered as the formal uniform like Kwanbok(冠服) of Parhae.

It might be because the 3th King Mun(文王) in Parhae accepted the Tang's culture positively. So, Tang's culture could affect Parhae's and this costume system also may be established at that time.

As mentioned above, the items that people in Parhae got from Tang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costume system of Parhae. Specially, the time when Sookwui was sent to Tang corresponded with the time when Tang gave formal uniform to Parhae's envoys. Therefore, we can confirm that the sending of Sookwui influenced to form uniform system of Parhae.

Parhae dispatched its envoys to ancient Japan officially from 727 A.D. to 919 A.D. It was from Nara era to the beginning of Pyungan era in ancient Japan. At that time, Tang's culture was also introduced to ancient Japan positively. Parhae's envoys sent to ancient Japan mainly took a high rank above five grades(5位) and got various noble costume from Japan's government. The costume was well-matched with their high rank.

Supposed the exchange time between Parhae and ancient Japan, the costume given to Parhae's officials and mentioned in the Japan's documents was similar to the costume system of Nara era. What is more,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se items were similar to those of Tang since it was the time when ancient Japan accepted Tang's culture actively.

4) The duplicated items in the exchange process and the meaning

In this exchange relation, there were several duplicated items showed, for example Po(袍)-belt(帶), Eui set(衣一襲), Eoeui(御衣), Jobok(朝服), Go(袴). These items in Parhae were appeared in process of exchanging from Tang to Japan and from Japan to Parhae.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costumes, which Parhae took from Japan, are the same as those of Tang.

At that time, the exchanges between Tang and Parhae were frequently active much more than those between Tang and Japan, and the acceptance of the culture from Tang was easier in Parhae than Japan in consideration of the geographical location. Therefore, those clothes could be understood as the items already used in Parhae and affected from Tang.

對唐·對日本과의 交流關係를 통해 본 渤海의 服飾文化 研究

-교류시 품목을 중심으로-

강순제·전현실*

가톨릭대학교·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발해의 복식에 대한 연구관점을 당과의 관계 및 일본과의 교류를 통한 고대 일본복식과의 관계, 특히 경제적 교류 시에 언급된 의복들로 확대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비교하였다. 즉 '발해 복식문화'와 나라~평안시대의 '일본 복식문화' 및 '당 복식문화'와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7세기 후반에 성립된 渤海의 문화는 이전 三國時代의 문화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삼국시대의 문화는 우리나라 고유문화에 바탕을 이루고 복식문화도 이에 따라 형성되었으나 발해와 통일신라의 체제가 이루어진 시기에는 이질적인 唐文化가 그들의 헤게모니를 앞세우고 남북국의 문화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1) 발해와 당, 일본과의 교류관계

발해는 唐(五代)과 日本의 주변 국가들과 政治·文化·經濟的 交流 關係를 유지했었는데, 渤海는 唐·五代로 143회의 사신 파견, 古代 日本으로 34회(비공식 3회)의 사신 왕래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630년, 당에 견당사를 파견한 후 894년까지 총 18회를 보냈다.

이러한 교류 관계들은 처음에 주변국과의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그 의미가

점차 변화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교류로 확대되었고, 각 국가들은 사신들을 파견하여 그들의 대표적인 產物을 주고받은 무역의 형태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당시 동북아시아의 문화권을 주도했던 국가는 唐이었기 때문에 발해와 일본의 조정에서는 당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다양한 당의

문헌과 문물을 익히고자 적극적으로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2) 발해-당-일본 사이의 교류품목

<冊府元龜>, <舊唐書>, <新唐書>, <張建章墓志>, <五代會要> 등의 중국문헌이나 <續日本紀>, <日本後紀>, <續日本後紀>, <日本三代實錄>, <類聚國史>, <扶桑略記> 등의 일본 사료에서는 발해와 주변국과의 사신 왕래시 각국 間에 주고받았던 다양한 物目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헌에서는 服飾을 포함한 경제적 교류 관계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남아있어서 발해 복식 문화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史料에 기록된 품목을 살펴보면, 발해와 唐·五代 간의 교류 품목의 변화과정에서 발해의 수출 품목은 초반에서 후반기에 걸쳐 鷹을 중심으로 한 鳥類, 海獸 및 魚類가 등장하다가 말기에 이르면 貂鼠皮, 熊皮, 虎皮와 같은 獸皮類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품목은 722~739년의 발해 전반기에는 관직에 준하는 袍-帶-魚袋가 주로 나타나고 중반 이후의 의복 품목은 812년에 衣 一襲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錦, 綵, 帛, 綿과 같은 직물류가 대부분이다.

일본과의 교류관계에서 발해에서 일본으로 5회에 걸쳐 貂皮, 大蟲皮, 豹皮, 熊皮과 같은 衣料가 대부분으로 수량도 그리 많지 않으며, 의류품도 피혁제품(暗摸靴, 帶, 裘)에 한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20회에 걸쳐 時服, 當色服,

朝服, 衣服, 雜色袷衣, 褙揩衣, 御衣, 袴, 冠, 履를 발해 사신에게 주었다.

일본과 당의 관계에서 일본이 당으로부터는 進德冠, 紫袍-白帶, 朝服, 被, 衣, 綿甲, 胄, 袴, 御衣, 御被의 의류와 綵帛, 貴布의 직물류를 받았고, 당이 일본으로부터는 錦帛과 絁, 糸, 綿, 布와 같은 섬유 제품을 받았다.

이를 통해 발해가 당·오대와 일본에 준 품목으로는 가죽 소재나 暗襪靴, 裘 등과 같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품목이, 당(오대)과 일본에서 발해에 준 품목으로는 다양한 衣服類와 여러 비단류의 衣料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술하였다시피 발해 사신들이 일본에 증정한 품목은 주로 가죽 제품인데, 이는 발해의 産物 중 대표적인 것이 가죽류였기 때문이다. 특히 수렵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당시 唐과 奈良時代의 사람들은 가죽과 같은 의료를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를 발해인들이 가져왔을 때 구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로 당시 가죽 의료나 가죽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품목은 당시 사람들의 부의 상징으로서 매우 인기있는 품목이었다.

또한 발해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官服類의 袍에 대한 기록은 주로 799~920년의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데, 이 시기는 이미 발해의 관복제도의 체계가 정립된 시기로서 일본과의 교류시에 나타난 이러한 품목은 발해의 복식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발해가 가져간 직물의 양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품목들은 발해에서의 부족한 양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3) 외래적 요소에 의한 발해의 복식문화

외래적 요소에 따른 복식문화는 주변국과의 교류관계에 의해 생성된 복식문화로 볼 수 있는데, 당을 중심으로 하여 발해, 당, 일본의 복식문화가 공유되고 있는 부분으로, 발해 지배층의 복식문화로 나타난다.

발해남자복식의 외래적 요소에 의한 특징은 服飾制度 및 官服, 당 복식과 유사한 다양한 衣服類에서 나타난다. 발해의 복식제도도 3대 문왕의

적극적인 당 문화 수용에 따른 것으로 738년 《唐禮》등의 중국 문헌을 사신을 통해 구해온 후부터 문왕이 中京으로 천도하고 5京이 확정된 시기, 즉 739~742년의 기간에 정해졌다.

기본적인 제도의 틀은 紫·緋·淺緋·綠의 4색이고, 그 구성은 袍, 帶, 笏, 魚袋로서 이는 唐의 常服의 제도에 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발해는 왕자 및 왕족들을 당에 宿衛로서 파견하고 조공했고, 이에 대해 당 조정은 관직과 함께 관복 및 의료들을 주었는데, 대체적으로 紫袍-金帶-魚袋나 緋袍-銀帶-魚袋의 구성을 보인다. 이는 발해의 복식제도의 구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숙위를 중심으로 한 사신들이 발해로 귀국 시 이러한 관복들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발해의 복식제도 정착에 기여했을 것이다.

또한 발해의 숙위는 707~824년의 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쳐 파견되었는데, 이들은 발해의 王子 등과 같은 왕족이나 공식 使臣들로, 이들은 당에서 많은 우대를 받았고, 國學에 입학하기도 하여 중국의 문물을 배우기도 하였으며, 이 중에는 賓貢科에 합격한 자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발해의 숙위 및 사신들이 당으로부터 관복을 받은 시기는 722~738년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발해의 복식제도도 아직 성립되지 않은 시기로서, 수차례에 걸친 숙위 및 사신 파견을 통해 738년 이후 발해의 복식제도의 체계가 성립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발해와 일본의 교류관계에서는 다량의 견직물류의 의료 외에도 다양한 의복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官服의 袍, 儀禮用의 의복으로 분류된다. 형태는 모두 團領으로, 관복의 용도로는 朝服(朝衣), 時服, 當色服, 御衣, 御被, 靑白橡衣袍를, 의례용의 남자의복으로는 褙揩衣, 雜色袷衣를 들 수 있다. 이때 특징적인 것은 朝服에 관한 기록으로, 발해-일본과의 교류에서 나타난 조복은 당의 조복이 아닌 공무시에 입는 唐의 常服, 渤海의 公服(官服)인

것이다.

4) 渤海-唐-日本の 교류과정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품목과 그 의미

발해-당-일본의 교류관계에서 나타나는 품목들을 분석해 보면, 사여 혹은 증정의 과정에서 몇 가지 중복되어 나타나는 품목이 있는데, 이들이 곧 袍-帶, 衣 一襲, 御衣, 朝服, 袴이다. 그런데, 교류관계에서 품목의 기록은 주로 당에서 일본 사신으로의 전달, 일본에서 발해 사신으로의 전달 과정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발해 사신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품목에 대한 정체성과 그 기준에 대한 모호함이 발생한다.

그러나 당시 당과 발해의 교류 횟수는 당과 일본의 교류 횟수보다 상당히 많았고,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서도 일본보다 발해가 당의 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용이했기 때문에 일본이 당으로부터 받았던 의복은 발해에서도 이미 사용되었던 것이다.

通过与唐朝、日本的交流关系研究的渤海服饰文化

—以交流物品种类为中心—

姜淳弟·全炫室*

天主教大学·天主教大学*

在本研究中，通过与唐朝、日本的交流研究，把對渤海服饰的研究范围扩大到与唐朝、古代日本服饰之间的关系，特别是在经济交流过程中出现的服饰，且對其进行了具体的分析和比较，拓宽了對渤海服饰文化的理解范畴。即，同时分析了“渤海服饰文化”和奈良时代至平安时代的“日本服饰文化”以及“唐朝服饰文化”之间的关系。

1) 渤海与周边国家的交流关系

渤海國曾经与唐朝(五代)与日本等周边国家维持了政治、文化、经济方面的交流关系。其中，在与唐朝五代政府进行交流的过程中，曾先后派遣使臣143次，同时向日本派遣使臣34次(非正式派遣3次)。日本在公元630年开始派遣唐使以来，一直到公元894年，共派遣18次。

起初，这样的交流关系是考虑到与周边国家的政治必要性而建立的，但是随着其意义逐渐发生变化，交流范围也逐渐扩大到经济领域，而且各国互相派遣使臣，相互交换本国的代表性特产，交流关系逐渐具备贸易形态。但是，当时唐朝是主导东北亚文化圈的國家，因此渤海与日本的朝廷纷纷向唐朝派遣使臣，为了解唐朝的各种文献和文物而采取了积极接受唐朝文化的态度。

2) 渤海—唐朝—日本之间的物品交流种类

在《册府元龟》、《旧唐书》、《新唐书》、《张建章墓志》、《五代會要》等中国文献和《續日本纪》、《日本后纪》、《續日本后纪》、《日本三代實錄》、《类聚國史》、《扶桑略记》等日本史料中记载有渤海國与周边国家在使臣互派过程中交流的物品种类。这些文献对包括服饰在内的经济交流关系内容进行了较为详细的记录，可作为间接

了解渤海服饰文化的资料。

在史料中记录的交流物品种类中，值得关注的是渤海國与唐朝五代政府之间的物品交流种类变化的过程。在渤海的出口物品中，從初期到后半期主要是以鹰为中心的鸟类和海獸、鱼类，到末期逐渐转变为貂皮、熊皮、虎皮等獸皮类物品。而從中国进口的物品中，從公元722~739年的渤海前半期进口品主要是以官职相关物品，如袍、带、鱼袋等；中期的服饰种类中，除公元812年进口的衣一裘之外，大部分都是锦、彩、帛、绵等织物类物品。在与日本的交流中，渤海國曾先后5次向日本出口貂皮、虎皮、豹皮、熊皮等衣类物品，数量并不多，而且局限于皮革制品(暗摸靴，带，裘)，而日本曾先后20次将時服、当色服、朝服、衣服、雜色袷衣、褙衣、袴、冠、履等物品通过使臣赠与渤海國。在与日本的交流中，唐朝将进德冠、紫袍—白带、朝服、被、衣、绵甲、胄、袴、御衣、御被等衣类物品和彩帛、紫布等织物类物品赠与日本，而日本将锦帛和粗丝、丝、绵、布等纤维物品回赠给唐朝。因此，在文献记载中，渤海赠给唐朝五代政府和日本的物品种类主要是獸皮、暗摸靴、裘等皮革制品，而唐朝(五代)和日本赠与渤海國的物品种类是各种衣物类和多种丝绸类衣料。综上所述，渤海使臣带到日本的物品主要是皮革制品，这是因为獸皮是渤海的代表性特产。特别是，对于并不熟悉于狩猎的唐朝和奈良时代的日本人而言，很难得到獸皮衣料。因此，每当渤海人带着这些獸皮物品前来时，能够购买獸皮的都是当时比较富裕的阶层。在当时来说，利用皮革衣料或獸皮制作的物品象征着富贵，是特别受欢迎的物品。

有關日本贈与渤海國官服类的袍等物品的記錄年代主要集中在公元799~920年間。這一時期的渤海已經確立了官服制度，因此与日本的交流中出現的服飾，對渤海服飾文化的形成并未產生多少影响。從渤海进口的織物类物品的數量上看，當時對这些物品的进口目的只是為了补充數量上的不足。

3) 外來因素形成的渤海服飾文化

与外來因素相關的服飾文化可看作是与周边國家的交流过程中形成的服飾文化，是以唐朝為中心的渤海、唐朝、日本服飾文化的共同部分，主要反映在渤海統治階層的服飾文化中。

外來因素對渤海男子服飾的影响特征主要反映在服飾制度及官服、类似于唐朝服裝的多种衣服类。渤海的服飾制度源于3代文王积极接受唐朝文化的政策，形成年代為自公元738年通过使臣引进中國文獻后，文王遷都中京、确定5京的時期，即公元739~742年間。基本服飾制度的框架由紫、緋、淺緋、綠等4色組成，包括袍、帶、笏、魚袋，其标准源于唐朝的常服制度。後來，渤海國將王子及其王族成員做為宿衛派遣到唐朝，而唐朝賜予他們官職，并贈与官服、衣物，主要是紫袍、金帶、魚袋和緋袍、銀帶、魚袋，这与渤海的服飾制度相一致。这些宿衛在返回渤海國時帶回了这些官服，直接和間接地影响了渤海的服飾制度，為渤海服飾制度的確立做出了一定的貢獻。

渤海國從公元707~824年前后12次向唐朝派遣宿衛，主要是渤海的王子等王公貴族和正式使臣。他們在被派到唐朝后，受到优厚的待遇，甚至考入國學，學習中國文化。其中，还有人在賓貢科中及第。而渤海宿衛和使臣被贈与官服的時期集中在公元722~738年間，這一時期是渤海的服飾制度尚未確立的時期。可以說多次向唐朝派遣宿衛及使臣，對公元738年后渤海確立服飾制度体系方面產生了很大的影响。

另外，据记载，渤海与日本的交流过程中，除了大量的絲制品类衣料之外，还有各种衣物。这可以分為官服类的袍和禮服用衣物。其形态均為团領。其中，官服的用途為朝服(朝衣)、時服、当色服、御衣、御被，禮服用男子衣物有袞搭衣、衣被、青白

橡表袍、雜色袷衣、袴。而有趣的是有關朝服的記錄。在渤海与日本的交流中出現的朝服并非唐朝的朝服，而是唐朝官員在执行公務時所穿的常服和渤海的公服(官服)。

4) 在渤海-唐-日本之间的交流过程中重复出現的物品及其意義

在交流过程中，有關物品种类的記錄只提及了唐朝對日本使臣、日本對渤海使臣的贈与物品傳達过程，因此從渤海使臣從日本帶回的物品看，其传统性和标准有些模糊不清。即，從記錄上看，只顯示了唐朝到日本、唐朝到渤海、日本到渤海的物品交流內容，因此可以認為，渤海使臣從日本帶回的物品源于奈良時代。但是，在研究者提出的渤海-唐、渤海-日本、唐-日本之间的三角關係中值得注意的是，存在重复出現的交流物品，即袍一帶、衣服(衣)、御衣、朝服、袴。这些物品的共同出現說明當時從唐朝流傳到日本的物品再從日本流傳到了渤海，可以推測日本贈与渤海的多數物品并非源于日本，而是來自唐朝。因此可以得出结论，渤海通过与日本的交流，間接地接受了唐朝服飾文化。

對唐・對日本との 交流關係を 通してみる

渤海の服飾文化 研究

- 交流品物を 中心に -

姜淳弟・全炫室*

カトリック大学・カトリック大学*

本研究の目的は、渤海の服飾についての研究の観点から、唐との關係は勿論、日本との交流を通じた古代の日本服飾との關係、特に經濟的交流時に述べられた衣服まで擴大し、具體的な比較と分析により、渤海の服飾文化に對する理解の幅を廣げることにある。すなわち、「渤海の服飾文化」と奈良～平安時代の「日本服飾文化」及び「唐の服飾文化」との關係を同時に調査した。

7世紀の後半に成立された渤海の文化は、以前の三國時代の文化とは異なる点をみせている。いうまでもなく、三國時代の文化は韓國固有の文化に基づいており、服飾文化もこれに従って形成されたが、渤海と統一新羅の體制が成立した時期には、異質的な唐文化が、そのヘゲモニーにより南北國の文化に影響を与え、南北國の時代は三國時代と異なった服飾文化を形成した。

1) 渤海と唐、日本との交流關係

渤海は唐(五代)と日本との政治・文化・經濟的交流關係を維持した。渤海は唐・五代へ143回の使臣を派遣し、古代日本とは34回(非公式3回)の使臣の往來があった。日本では、630年の唐への遣唐使派遣以後、894年まで總18回の遣唐使派遣を行った。

このような交流關係は、當初、周辺國との政治的必要によって始められたが、この意味が徐々に變化するにつれて、經濟的交流にまで廣がり、各國家は使臣たちを派遣し、彼らの代表的な産物を交換する貿易の形態を維持した。ところが、當時東北アジアの文化圏を主導した國家は唐だった

ため、渤海と日本の朝廷では、唐へ使臣を派遣し、様々な唐の文獻と品物に接し、積極的に唐の文化を受容する姿勢を取った。

2) 渤海-唐-日本間の交流品目

〈冊府元龜〉、〈舊唐書〉、〈新唐書〉、〈張建章墓志〉、〈五代會要〉などの中國の文獻、あるいは〈續日本紀〉、〈日本後紀〉、〈續日本後紀〉、〈日本三代實錄〉、〈類聚國史〉、〈扶桑略記〉などの日本の史料には、渤海と周辺國との使臣往來時の各國の様々な交換品目が記録されているが、このような文獻では、服飾を含む經濟的交流關係の内容が、比較的具體的に残っているため、渤海の服飾文化を間接的に知る資料になると考えられる。

史料に記録された品目を調べると、渤海と唐・五代間の交流品目の變化過程について、注目すべき点がある。渤海の輸出品目については、初期から後期にまたがって、鷹を中心に鳥類・海獸及び魚類が登場したが、末期に至って、貂鼠皮・熊皮・虎皮のような獸皮類が現れた。722～739年の渤海の前半期には、中國から受け取った品目は、官職に袍・帶・魚袋が主に見られるようになり、後半期以後の衣服の品目は、812年に「衣一襲」を受け取ることを除外して、錦・綵・帛・綿のような織物類が大部分となった。

日本との交流關係で渤海から日本へ5回に渡って送られた品目は、貂皮・大蟲皮・豹皮・熊皮のような衣料が大部分であり、數量もほと

んどなく、衣類も皮革製品(暗摸靴・帯・裘)に限られており、日本は20回にまたがり、時服・當色服・朝服・衣服・雑色衿衣・葵措衣・御衣・袴・冠・履を渤海の使臣に贈った。

日本と唐の関係では、日本が唐から進徳冠・紫袍-白帯・朝服・被・衣・綿甲・冑・袴・御衣・御被のような衣類と綵帛・賁布のような織物類を受け取り、唐は日本から錦帛と絶・糸・綿・布のような繊維製品を受け取った。

これらを通して、渤海が唐・五代と日本へ贈った品目には、皮革の素材、あるいは暗摸靴・裘(皮の上着)などのように、革で作った品目が主で、唐(五代)と日本から渤海へ贈られた品目には、様々な衣服類と絹織物類の衣料が多かった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る。先に述べたように、渤海の使臣たちが日本へ贈呈した品目は、主に皮革製品だったが、これは渤海の産物の中で代表的なものが革類であったためだ。特に、狩獵の生活に慣れていなかった唐と奈良時代の人々は、革のような衣料を求めることが困難であったため、これを渤海人たちが持ち込んだ時、それを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た人々は、富を持った者であった。革などを利用して作ったものは、当時の人々には、富の象徴としても、とても人気があるものだったと言える。

また、渤海が日本から受けた官服類の袍についての記録は、主に799~920年間に現れたが、この時期は、既に渤海の官服制度の體系が形成された時だったため、日本との交流時に登場したこれらのものは、渤海の服飾文化の形成に、あまり大きな影響は及ばさなかった。ただ、渤海が贈呈した織物の量などを考えると、その目的は、渤海での不足な量を補充するためであった。

3) 外來的要素による渤海の服飾文化

これは周辺國との交流関係によって作られた服飾文化と考えられ、唐を中心にして渤海・唐・日本の服飾文化が共有している部分で、渤海の支配層の服飾文化で現れる。

渤海の服飾の外來的要素の特徴は、服飾制度及び官服、唐の服飾と類似した様々な衣服類に現れ

る。渤海の服飾制度は、文王の積極的な唐の文化受容によるところで、738年<唐禮>などの中國の文獻を使臣を通して入手以後、文王が中京へ遷都し、5京が確定された期間(739~742年)に決められた。

基本的な官服制度は、紫・緋・淺緋・緑の4色として、これらの構成は、袍・帯・笏・魚袋として、これは唐の常服の制度によるものであった。渤海は、王子及び王族たちを唐へ宿衛として派遣・朝貢し、返礼として、唐の朝廷は官職と共に官服及び衣料を贈呈し、主にそれらは、「紫袍-金帯-魚袋」、あるいは「緋袍-銀帯-魚袋」であった。これらは渤海の服飾制度の構成と一致するもので、宿衛を中心とした使臣たちが渤海へ歸國する際、このような官服を直・間接的に傳達し、渤海の服飾制度の定着に寄與したと考えられる。

また、渤海の宿衛は、707~824年間總12回に渡って派遣されたが、彼らは渤海の王子などのような王族、あるいは公式の使臣として、唐から優待を受けたり、國學に入學したり、中國の文化を學んだりした。この中でも、渤海の宿衛及び使臣たちが唐から官服を受け取った時期が、722~738年に集中的に現れていることが特徴である。この期間は、渤海の服飾制度がまだ成立していない時期として、數回の宿衛及び使臣の派遣は、738年の以後渤海の服飾制度の成立に影響を与えた。

ところが、渤海と日本の交流関係では、多量の絹織物類の衣料の外にも、様々な衣服類が記録されているが、これらは、官服の袍、儀禮用の衣服などであった。形態は全て團領であり、その用途は朝服(朝衣)・時服・當色服・御衣・御被であり、儀禮用の衣服には、葵措衣・衣被・青白橡表袍・雑色衿衣・袴があった。特徴的なことは、朝服についてであり、この際の朝服は、唐の朝服ではなく、公務時に着用する唐の常服、あるいは渤海の公服(官服)である。

4) 渤海-唐-日本の交流過程で重複されて現れる品目とその意味

交流関係での品目は、主に唐が日本の使臣へ贈ったもの、日本が渤海の使臣へ贈った過程のみが記録されているために、渤海の使臣たちが日本から受け取った品目についての基準は曖昧であり、本来、どの國のものであったのかに疑問が残る。記録を通してみると、唐→渤海、唐→日本、日本→渤海へ傳達された内容が残っているため、渤海が日本から受け取ったものは、奈良時代のものだと考えられる。

しかし、本研究者が提示する、「渤海-唐」、「渤海-日本」、「唐-日本」間の三角関係で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点は、当時の渤海-唐-日本の三角関係の交流関係では、いくつかの重複されて現れる品目があるが、これらは、すなわち、袍・帶・衣 一襲・御衣・朝服・袴である。このような品目が共通して記録されていることから、唐から日本、日本から渤海へ傳達される過程を推測することができる。要するに、渤海が日本から受け取った多数の品目は、まだ 渤海で 着用されていた 唐の服飾であった。